

江原日報

나 홀로 조깅·인터넷 어학공부...일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사입력 2020-04-27 00:33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환경에 익숙해지는 '뉴 노멀' 관심 커져
정부 생활 속 세부지침 발표...빅데이터 '자기계발' 검색 많아

춘천 만천리 소재 A음식점은 최근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독립공간을 만들었다. 춘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손님이 주춤하자 내놓은 자구책이다. 음식점 대표 박모(56)씨는 "독립공간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 테이블 수는 줄었지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코로나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 노멀은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사회 상황을 두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환경이 이제는 일상이 된 분위기를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하면서 '뉴 노멀'은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유지, 손소독 등 31개 항목으로 인사의 기본인 악수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접촉을 최소화하며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소셜매트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쇼핑 등 여가성 키워드보다 운동·공부와 같은 자기계발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슬기롭게 넘기거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IT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31)씨는 회사의 재택근무 방침에 따라 한 달 동안 고향 원주에서 지냈다. 이씨는 "하루 2시간의 통근 시간이 고스란히 개인 시간이 됐다"며 "인터넷으로 직무 관련 강의를 듣고 어학공부를 하는 등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또 도내 A대학 재학생인 최모(25)씨는 최근 '나 홀로' 조깅을 시작했다. 온라인 개강으로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평소와 달리 실외운동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며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약을 가져다줄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균기자 droplet@kwnews.co.kr

© 강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7&aid=0000796644>
